

■ 제주도교육청·한라일보가 함께하는 숲길체험 프로그램 (5)제주북초등학교

오솔길 걸으며 마주친 열매에 “와아...”

한라생태숲에서 가을 만끽
아이들 얼굴마다 설렘 가득
열매 관찰하고 맛 보기도
‘자연과 공생’한 즐거운 하루



제주북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김명준 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선생님이 질문했다. “이 열매 속에는 씨앗이 몇 개 들어있을까요?”
“10개요.” “100개요.” “아니야 한 개야.” 아이들의 대답이 분분하다.
“이 열매 속엔 아주 작은 씨앗들이 10만개나 들어 있어요.”

“우와~!” 아이들의 탄성으로 숲은 시끌벅적하다.
지난 5일 제주도 용강동 한라생태숲에서는 제주도교육청과 한라일보가 함께하는 ‘2021 숲길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프로그램은 ‘가을숲 놀이터-오감으로 가을 느끼기’를 주제로 제주북초등학교 1학년 1반과 2반 총 3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모처럼 야외 체험학습을 나온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마스크를 챙겨 쓰고 짝의 손을 꼭 잡

은 채 걷는 학생들의 모습은 보기만 해도 웃음이 번졌다.
이날 숲 체험을 위해 제주자생식물연구회 대표인 김명준 씨가 강사로 나섰다. 학생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숲 체험에 앞서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아그베나무와 마주했다. 김 강사가 나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작은 사과 같은 열매를 베어 물었다. “맛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묻자 여기저기서 “저요”, “저요”를 외치는 소리로 가득했다.

망설이던 학생들도 친구들의 용기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이내 손을 들고 “저요”라고 외친다. “사과 맛인데 입이 찢쩍해요.” 한 학생이 열매의 맛을 표현했다. 김 강사는 아그베나무와 사과나무가 친척쯤 된다고 설명하며, 새들이 이 작은 열매를 먹고 배설물을 통해 씨가 다른 곳으로 퍼지면 또 다른 나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금 더 발길을 옮기자 산딸나무 열매가 한가득 떨어져 있다. 빨간 열매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지

모두들 한참을 살펴보고 만져보며 신기해했다. 이번에도 용기 있는 학생들은 자원에서 열매를 맛봤다.

학생들은 천천히 숲길을 걸으며 딱따구리가 나무에 만든 집도 구경하고, 고사리를 타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미도 관찰했다. 길가에 핀 꽃들과도 눈을 맞추며 “선생님 이 꽃은 이름이 뭐예요?”라고 먼저 물었다. 어느새 숲과 가까워진 학생들의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다.

임예담 학생은 “이끼 정원에 물을 주는 모습이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기억에 남았다”며 “특히 산딸나무의 빨간 열매가 좋았다”고 했다.

고이준 학생은 “오늘 친구들과 함께 가을 숲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재미 있었다”며 “한라생태숲에 또 오고 싶다”고 말했다.

담임교사인 좌연순 교사는 “학교로 돌아가면 사람과 나무, 식물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생’에 대한 이야기를 학생들과 더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내년부터 ‘제주형 자유학기’ 추진”

도교육청 자유학년제 개선 ‘2022 교육과정안’ 검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 ‘자유학년제’를 개선한 ‘(가칭)2022 제주 ‘꿈키움123’ 교육과정’의 내년 도입 계획을 6일 밝혔다.
다만 시행 1년만에 운영 방향이 바뀌에 따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시행을 1년 유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성장 맞춤형 진로탐색 교육을 초·중·고로 연계하는 ‘(가칭)2022 제주 ‘꿈키움123’ 교육과정’을 내년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2022 제주형 자유학기-진로연계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알리며 자유학년제 시행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정확한 평가도 없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이미 9월 학교 현장의 내년 실시 계획 보고도 끝난 상황에 이를 무시한 공문을 보내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자유학년제는 현재 초6학년부부터 2022개정교육과정 및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와 긴밀하게 연계돼야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기에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선 방안은 자유학기제 적용 학년을 확대해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 2학년 진로탐색, 3학년 2학기 진로진중학기 운영을 통한 초6학년부부터 고1까지 연계되는 진로·진학교육 추진이다.

이 경우 현재 ‘자유학년제’로 처리되지 않던 중1 지필평가가 한 학기 부활하게 된다. 단, 도교육청은 서·논술형 과정중심 지필평가를 검토중이며, 평가 결과는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중1·3학년 각 한 학기씩 분산해 현재 자유학년제에서 운영중인 자유학기 활동(진로탐색, 예술·체육 활동 등 221시간)을 하게 되는 만큼 자유학년제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중 ‘2022 제주형 자유학기-진로연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편제표 및 교육활동 예시안을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 명칭 공모전과 학부모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대도민 이해도 제고 사업도 추진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민속촌’ ‘생각하는 정원’ 제주 이색 회의 명소로 선정

한국관광공사 공모전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전국 39개 이색지역회의 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리아 유니크베뉴 MICE 유니크 프로그램 개발 공모전’에서 총 9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한 가운데 제주에서는 제주민속촌과 생각하는 정원의 4개 프로그램이 뽑혔다.

우선 제주민속촌은 ‘제주양악’과 ‘귀봉 아일랜드-제주 지방령의 원한’ 등 두 개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제주양악은 조선시대 제주도 최고 통치자인 제주목사(현재의 도지사)가 제주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영 만찬을 베푼다는 설정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즐길거리 등을 담은 퓨전 파티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귀봉 아일랜드-제주 지방령의 원한은 제주의 다양한 귀신 체험과 퍼포먼스, 미디어 아트와 제주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만찬으로 구성됐다. MICE 관광 단체의 니즈에 맞는 선택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탄력적으로 재구성 할 수 있는 유연성 갖췄다.

생각하는 정원은 ‘싱잉볼 가운드 가든’과 ‘한국 파란나무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이 선정됐다.

싱잉볼 가운드 가든은 자연을 만끽하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싱잉볼 진동체험, 싱잉볼 풋스파, 싱잉볼 바다 힐링으로 시간대별 힐링 체험 프로그램 구성됐다. 나무를 매개체로한 사색과 예술, 심신의 안정을 증진시키는 문화예술 치유 융복합 체험 프로그램이다. 한국관광공사는 9개 우수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모니터링단 평가를 통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을 선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만개한 분홍바늘꽃 6일 제주시 이호동 한 공한지에 조성된 꽃밭에 분홍바늘꽃이 만개해 행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강희민기자

“종교행위 거부한 보육교사 어린이집서 괴롭힘 시달려” 제주평등보육노조 기자회견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은 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에게 종교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한 도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육노조는 “최근 제주시내 모 종교법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육해야 할 시간에 교사들에게 종교행위 참여를 강요했다”며 “이를 거부하는 교사가 나오자 출·퇴근 시간 조정과 과제 지시, 음로 섭취 금지 등 보복성 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노조는 수 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에 직장내 괴롭힘 중단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상황을 알렸다며 해당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비상식적

인 행태를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보육노조는 “해당 교사는 수 개월의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는 등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당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구시대적 종교행위 강요와 그 강요를 거부하자 벌어진 직장내 괴롭힘을 반인권적·반노동적 상황으로 규정, 보육노동자들과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은범기자



이룸갤러리
백광익 화백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기간. 2021. 10. 2(토) ~ 10. 20(수) 장소. 이룸갤러리 전시실A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imgallery.com 문의. 070-7795-5000

백 광 익 (白光益)
주요 경력
· 개인전 40회 한국(서울, 부산, 광주, 제주), 미국(뉴욕), 중국(북경, 천진)
· 단체전 및 초대전 (360여 회)
· 심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 부산, 경기, 제주도, 대구삼성, 행주, 한밭, 단원 미술대전 심사위원

현재
사) 한국미술협회, 부산 혁 동인, 제주 전업작가회
사)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 동아육선 전속작가

인사말
이룸갤러리에서 백광익 화백을 모시고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초대전 백광익 선생님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 특유의 문화와 자연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다양하고 일관된 작품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안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 제주의 특별한 자연 유산 '오름'과 '바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광익 선생님의 많은 수상 이력에서도 알 수 있는 우수한 실력과, 최근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현시대보다 딱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현대적 감각은 글로벌 시대 속의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흔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제주의 특별함을 화폭에 담아내며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시는 백광익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쏟아지는 유성 같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전야같은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쓰러지지 않는 고목나무같은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이 돋보이기도 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걸음 하셔서 백광익 선생님의 제주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룸갤러리 관장 이 회 속